

2019년 지방직 7급 국어(B책형)

1.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의 '이'는 '현주가 취직이 되었다'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 집'을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수식하는 '그'는 화자와 청자 모두 아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③ '우리가 싫어했던 저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저것'은 우리가 아는 대상이다. 즉 '저것'은 화자와 청자 모두 아는 내용을 지시하고 있다.

④ '저'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이는 지시 대명사이다. 따라서 문장 속에 쓰인 '저'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2.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주제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의 주제는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므로 '관광 업체의 매출 실적'은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 토론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주민이 입은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정답 ②

정답 해설

㉡ ㉠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는 '부치다'가 맞다.

㉢ '맞달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는 '붙이다'가 맞다.

㉤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는 '부치다'가 맞다.

오답 해설

㉠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는 '부치다'가 맞다.

㉢ '말을 걸거나 치근대며 가까이 다가서다.'는 '붙이다'가 맞다.

㉤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는 '붙이다'가 맞다.

4. 정답 ④

정답 해설

㉣ 제시된 부분은 보살과 나한의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글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유추는 낯설고 어려운 개념을 익숙하고 쉬운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제시된 부분에서 '유추'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5. 정답 ㉣

정답 해설

㉣ 이 글은 SNS가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의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2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따라서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 해설

② 1문단을 보면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이다.

7.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효녀 지은은 효성을 다해 부모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問安)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子息)이 아침저녁으로 부모(父母)의 안부(安否)를 물어서 살핍을 이르는 말’인 ‘혼정신성(昏定晨省)’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간담상조(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라는 뜻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밀(親密)히 사귀

②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努力)과 끈기 있는 인내(忍耐)로 성공(成功)하고야 만다는 뜻

④ 고장난명(孤掌難鳴): 외손뼉은 울릴 수 없다는 뜻으로, ① 혼자서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 ② 상대(相對) 없이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

8.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여쭙다’는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다’의 의미이다. 따라서윗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므로 ‘저에게’ ‘여쭙 보셨던’은 호응이 바르지 않다. ‘저에게’는 ‘물어보셨던’이 바르게 호응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높임의 대상인 ‘부장님’을 높이기 위해 부장님과 관련한 대상인 ‘넥타이’를 간접 높임하고 있다.

② ‘어머님’에 비해 ‘남편’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상이므로 압존법을 사용하여 ‘어머님’ 앞에서 남편을 ‘아비’로 표현하고 있다.

③ 주체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께서, 시’ 등을 사용하고 있다.

9.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남짓’은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① ‘-쯤’은 ‘알맞은 한도, 그만큼가량’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② ‘-어치’는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④ ‘-경’은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의 의미를 갖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10.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가)의 화자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남편이 배 타고 대동강을 건너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까 봐(남편이 바람 피는 상황) 걱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가 임과의 동행을 선택한 장면은 확인할 수 없고 (나)의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② (가)와 (나)의 ‘물’과 ‘강’은 임과 내가 이별하는 공간이다.

④ (가)와 (나)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11.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곰치’는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삼’ 보고 시끄럽다고 하는 장면은 ‘성삼’이 혹시나 임제순의 기분을 거슬리게 할까 봐 조심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에 들어 갈 말은 ‘주의를 주는 말투’가 맞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임제순’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곰치’가 ‘임제순’의 무리한 요구에 순응하고 있는 장면 이므로 ‘체념조’가 적적할 것이다.

12.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 뒤에서 러시아가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차이가 컸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모스크바어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는 표현을 통해 ㉠에 들어갈 말이 언어의 단일화의 ‘시행’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은 ‘서양의 봉건제가 붕괴된 이후의 민주 의식’과 관련하여 ‘지양’보다는 ‘교양’이 더 적합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 즉, 언제(11일과 12일 저녁), 어디서(울산과 부산), 무엇을(가을 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을 이용하여 기사의 요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제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② 원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④ 기사 본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

14.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화자는 ‘너’를 기다리고 있고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때 ‘너’는 보면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 없을’ 정도의 긍정적 대상이다. 따라서 화자는 미래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온다’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이때 효과로 ‘운율과 강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온다’라는 단정적 어조로 ‘너’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개대하는 상황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봄’을 ‘너’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15.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많은 상상을 해 왔고 그 상상의 대상은 종교적 믿음, 이성, 산업화 등등 시기마다 상이하였다. 1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각 시기에 따라 상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은 각 시기마다 다양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보여 왔다. 따라서 현재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인간의 가치관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 마지막 부분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시대가 된 것이다’를 통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운명(運命): 운전할 운 / 목숨 명

자서전(自叙傳): 스스로 자 / 줄 서 / 전할 전

염세적(厭世的): 싫을 염 / 세대 세 / 과녁 적

성실(誠實): 정성 성 / 열매 실

17.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이 소설 장면에서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북관 선생의 시는 남녀의 사랑을 상징하는 '원앙새'가 나오는 시로 동리자와 통정하고자 하는 자신의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③ 범을 의인화하여 북관 선생을 꾸짖는 장면을 설정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④ '유(儒:선비 유)는 유(諷:아침할 유)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를 통해 북관 선생을 비판하고 있다.

18.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의미 중복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투고'는 '의뢰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어 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냄. 또는 그 원고'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의미가 겹쳤다.

② '도보'는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감'을 의미하므로 '걸었다'와 의미가 겹쳤다.

④ '결연'은 '인연을 맺음. 또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므로 '맺은'과 의미가 겹쳤다.

19.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중략' 아래 부분을 보면 '오늘 내가 말한~마지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가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부분 '앞에서 검차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이'를 통해 최후 진술은 검찰관의 논고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안중근 의사의 최후 진술을 보면 이등을 제거한 행위가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고 이는 이등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4번째 줄을 보면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를 통해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4번째 줄 '멕시코 정부에서~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를 통해 '언어 자살 현상'은 외부의 강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④ 마지막 부분 ‘나는 부모님들처럼~셈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